

강진군, 3조3천억 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 확정

전남도-베네포스 등과 투자유치 협약... 2029년 완공 목표, 연간 100억 원 이상 강진군 세수 증대 기대

강진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00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농어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미래 첨단 AI 산업으로 재편하는 첫발을 뗐다.

강진군은 지난 16일 전라남도청 서재 필실에서 전라남도, ㈜베네포스와 함께 '강진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현효 ㈜베네포스 회장을 비롯해 대우건설, KT 등 사업 참여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300MW급 대형 프로젝트 2029년 운영 개시 목표

이번 협약에 따라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일원 약 8만7,000평 부지에 300MW급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 최대 수준의 규모로, 민간주도 산업단지 지정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6월 완공, 7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에는 분야별 국내 최고의 기업들이 원팀으로 참여한다. 대우건설(시공) KT(설비설계) 탑솔라(재생에너지 공급)가 핵심 역할을 맡으며, 유진투자증권과 시드인베스트먼트가 금융 투자를 담당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입지적 강점과 행정력의 결합... '신강진변전소'가 핵심
강진군이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다. 군은 전남 서남부권 유일의 345KV 변전소인 신강진변전소가 사업 부지 인근(0.2km)에 위치해 전력 공급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었다.

특히 해남과 신안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가 신강진변전소로 집결되는 구조여서,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연간 100억 이상 세수·고용 창출 등 '강진 경제 대전환' 예고
강진군은 이번 데이터센터 유치로 지역 경제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재정 확충. 유사 규모 데이터센터 사례를 비취볼 때, 운영 개시 후 매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수익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 이상이다. 200여 명의 전문 인력 직접 고용은 물론, 유지관리 기업들의 입주를 통한 연쇄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점근성 향상도 눈여겨봐야 한다. 올 하반기 강진-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주와의 이동시간이 30분대로 단축돼 인근 AI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화순군, '한국 수출 최초 수출 기념식'

내수 중심 난 사업, 글로벌 시장 진출 신호탄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8일 화순출판재배온실(농주면 만수리 위치)에서 '한국 수출 최초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화순난연협회(회장 배용일)가 주관한 난 판매전과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국내 유통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판매전 현장에서 수출 기념식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한국 난 산업이 내수 중심 구조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수출은 검역·환경·통관 등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국 최초 조의 합법적 한국 수출 사례로, 그동안 비공식 거래에 머물던 난 유통 구조를 산업화·수출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는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해 화순난연협회사법인 대표, 지역 난 재배 농가, 전국 애란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업정책과장이 경과보고를 통해 그간의 수출 추진 과정과 행정적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 화순군은 중국 수출 성사를 위해

화순난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2024년 4월 중국 복건성과 난산업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화순 난 명품 박람회와 복건성 남정현난화협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한국 수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현지 검역 기준·유통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회성 수출이 아닌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수출 구조를 마련했다.

1차 수출 물량은 한국 수출 500족으로 시험 수출의 의미를 띠며, 중국 복건성 장주시 남정현 지역 현지 유통업체로 수출될 예정이다. 향후 순차적인 추가 수출을 통해 화순군이 한국 수출을 중국 유통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난 유통 기반의 안정성 확인 ▲수출 가능 품종의 품질 경쟁력 검증 ▲재배 농가의 수출 참여 확대 가능성 제시 등 난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축하금 지원을 통해 청년 세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으로 안정적 출발 응원

혼인신고 신흠부부에 200만 원 지원, 결혼 초기 경제 부담 완화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청년부부의 결혼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를 마친 신흠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 결혼을 계기로 나주에 정착한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청년부부로 신청일 직전까지 전라남도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전남 아이톡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나주/이명열 기자

나주시는 결혼축하금 지원과 함께 청년 주거, 일자리, 복지 정책을 연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결혼은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청년부부가 나주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도 높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순천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겨울철 한파 대응 종합대책' 본격 가동

취약계층 보호부터 한랭질환·동파 예방까지 총력 대응

시는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질병관리과, 친환경농업과, 상수도과 등 2개 반 4개 부서로 구성된 한파 대응 TF팀을 편성해 한파 상황관리와 피해 우려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랭질환 발생에 대비해 순천시

보건소와 순천의료원을 포함한 관내 의료기관 6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파 구호키트를 배부했으며, 노인돌봄서비스와 방문간호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및 부녀회 등과 협력해 '우리동네 어르신 안부살피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노인시설과 보건소, 금융기관 등 총 728개소를 한파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난방기기 점검과 교체를 완료했다. 한파 기간(11월~3월) 동안 경로당

쉼터별로 최대 33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해 시민 누구나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파로 인한 상수도 동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도 긴급복구반과 비상급수 차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파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 시설물에 대해서도 현장예찰을 실시하고 시설물 보호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며, 공공근로사업 93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무안군, 2026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 34명 등 총 127명을 선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 70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

역야동센터 학습 및 돌봄 도우미, 여성 원어민 강사 아동학습 지원 등 15개 사업에 배치된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무안군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

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공고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 공적연금 수령자, 타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무안군은 1월 30일 신청 접수 마감 이후 참여 자격 여부를 심사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고, 2월 23일경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고할 계획이다. /무안군 제공

구례군, 통일감자 수확 현장 컨설팅 추진

안정적인 농가소득·구례감자 브랜드 가치 향상 위한 도약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1월 16일 용방면 감자작목반(회장 최인호)이 재배한 통일감자 수확 현장에서 기술지도도 했다. 통일감자는 기후 적응성이 뛰어나고 수확량이 높아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에 적합한 품종이다. 군은 냉해에 취약한 기존 수미감자의 대체 품종으로 통일감자를 선정하고, 2024년부터 감자작목반을 중심으로 전문교육 및 기술지도도 병행하며 농가 육성에 힘써왔다.

이번 성과는 재배 전 과정에 걸친 농업 기술센터의 체계적인 기술지도와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컨설팅, 그리고 농가의 적

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이룬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통일감자 재배면적은 전체 시설 하우스 면적의 1/3(5ha, 80동) 규모로 확대됐으며, 1동당(200평) 평균 수확량은 약 85박스(품질과 수확성이 우수해 농가와 시장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기상변동성에 대비한 재배기술과 품질관리 교육을 더욱 강화해 구례 통일감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평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햇살 같은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낫다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게 웃을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저서
기억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들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말야할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색감처럼. 잠시. 마음을 쉬우고
및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풍환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단'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겠지. 언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한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
언제나 우연치 않게.

